

2025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서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에베소서

메시지 12
몸의 구속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도장 찍으심

성경: 엡 4:30, 빌 3:21, 롬 8:23

- I.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습니다”—엡 4:30.
- A.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 B.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요 14:16-17.
 - C.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롬 8:4) 않을 때, 곧 일상 생활의 세부적인 일 가운데서 은혜와 실지의 원칙에 따라 살지 않을 때, 그분은 슬퍼하신다.
 - D.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권유에서 사도는 은혜와 실재를 기본 요소로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엡 4:18)과 하나님의 영을 긍정적인 면의 기본 요인으로 삼고, 마귀(엡 4:27)를 부정적인 면의 요인으로 삼는다.
 - E.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때,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은혜와 실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 F. 하나님께서 도장 찍으시는 요소이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 찍으셨다.
 - G. ‘그분 안에서’는 요소이신 성령 안에서를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도장 찍으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 H.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혔습니다”—엡 1:13.
 - 1. 성령으로 도장 찍는 것은 살아있는 도장이신 성령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 2.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으로 선정 되었다—엡 1:11.
 - 3.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도장으로 넣으시어 우리에게 표시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엡 1:13.
 - 4. 성령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자신이시며, 도장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과 같게 만드신다.
 - I. 에베소서 1장 13절의 ‘약속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 찍으신 것이 그분의 기쁨을 따라 계획하신 것임을 가리킨다.
- II.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빌 3:21.
- A. 우리의 몸이 변형되는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완결이다.
 - B.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안에서 먼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였고(요 3:6), 지금은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고 계시며(롬 12:2), 결국에는 우리의 몸을 변형시키셔서 우리 존재의 세 부분을 다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드실 것이다.
 - C. ‘우리의 비천한 몸’은 우리의 타고난 몸을 가리킨다. 이 몸은 가치 없는 흙으로 만들어졌고(창 2:7), 죄와 약함과 질병과 죽음(롬 6:6, 7:24, 8:11)으로 손상되었다.
 - D. 어느 날 이 몸은 변형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은 그분의 부활한 몸,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적셔지고(눅 24:26), 부패와 죽음 위에 초월한 몸이다(롬 6:9).

E. 우리 몸의 변형은 주님의 지극히 큰 능력, 곧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 복종시킨(엡 1:19-22) 능력으로 성취된다. 이것은 우주 안의 전능한 능력이다.

III.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롬 8:11.

A.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로마서 6 장에 제시된 객관적인 사실은 오직 8 장에 제시된 내주하시는 영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된다.

B. 로마서 8 장 11 절에는 세 항목들이 있다.

1. 삼일 하나님 전체—‘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
2. 삼일 하나님을 분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 이것은 ‘예수님’(육체되심을 강조함), ‘그리스도’(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함), ‘살리신’(부활을 강조함) 이라는 단어들에 강조되어 있다.
3. 삼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은 이들 안으로 분배하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분배는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즉 우리의 온 존재에까지 이른다.
4. 이것은 신성한 능력으로 병이 낫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의 온 존재를 적시시도록 그분께 허락해 드린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5.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 가는 우리의 몸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주시어 낫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몸을 소생시키셔서 그분의 뜻을 수행하게 하신다.

IV.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롬 8: 23.

A. 몸 안에서 구속 받는 것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롬 8:30.

B. 영광스럽게 함과 우리 몸의 구속은 동의어이다.

C.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얼마나 성숙되었는지 간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지 않은 한, 우리의 몸은 구속 받지 않은 것이다.

1.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때, 우리의 영광스럽게 됨은 또한 우리의 몸의 구속이다.
2. 믿는 이들이 영광스럽게 됨과 동시에 그들의 몸이 구속 받을 것이다.

D. 고린도 전서 1 장 30 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라고 한다.

1.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안에서 그리스도는 의(우리의 과거를 위한) 이시다.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거듭나 신성한 생명을 받기 위한 것이다 —롬 5:18.
2.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는 거룩하게 함(우리의 현재를 위한)이시다. 우리는 이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거룩하게 되어 가고 있다—롬 6:19-22.
3. 결국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 (우리의 미래를 위한), 즉 우리 몸의 구속이시다.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신성한 생명으로 변형되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양을 갖게 될 것이다 —빌 3:21.
4. 우리의 온 존재—영과 혼과 몸—를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도록 하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